

## 學會誌 二號를 내면서

通信이 갖는 包括的이고 다양한 特性을 보다 쉽고, 廣  
範用하게 수록하여 通信에 대한 一般讀者들의 관심을 고취  
시키고자 改編된 “韓國通信學會誌”가 두번째 號를 맞이하  
게 되었다.

本號에서도 前號에 이어 通信政策 및 全般的인 動向을 다  
룬 「通信振興」, 네트워크(Network)의 運用에 관한 「通信  
運用」, 個人 및 企業 등 一般需要者에 대한 通信情報를 提  
供하는 「私設通信」, 새로운 通信네트워크 및 시스템開發에  
관한 「通信시스템」 그리고 날로 變化하는 通信技術을 용이  
하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「技術解説」로 区分하여 該當 論  
文을 수록하였다. 따라서 通信에 관한 專門知識을 갖지 않  
은 一般人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.



韓國의 社會 및 經濟가 여러方面에서 急速度로 成長·發展하여 經濟社會構造가 復雜·多樣  
化되고 部門間 相互依存度가 깊어짐에 따라 經濟·社會 各部門間의 원활한 意思疏通이 없  
는 國家經濟·社會 運用이 順調롭게 進行될 수 없다.

生産者는 消費者 및 生産者 相互間의 情報交換을 원활히 함으로써 生産費를 節減하고 매  
출액을 늘림으로서 利潤을 높일 수 있다. 또한 消費者들도 商品에 대한 情報를 신속·정확  
히 획득하여 제한된 所得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 消費支出의 効率化를 도모할 것이다.

이와 같은 經濟·社會 部門間의 意思疏通은 이들을 연결하는 通信네트워크 없이는 불  
가능하다. 즉 情報를 人體의 各器官에 영향을 주는 “피”라고 하면 情報를 傳達하는 通信네  
트워크는 “血管”에 해당된다. 따라서 良質의 血管 없이는 人體의 部門이 마비되듯이 經濟·社  
會構造變化에 부응하는 適切한 通信네트워크의 構築 및 效率인 運用이 先行되지 않으면 國  
家全體가 健全하게 發展되어 갈 수 없다. 특히 情報化社會에서는 各種의 情報가 洪水처럼  
쏟아져 나와 이를 잘 運用하는 企業이나 個人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감안하  
면 通信에 대한 全般的인 知識의 획득, 활용은 지금보다 더욱 必要時된다.

이러한 經濟·社會的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本 學會誌가 앞으로도 더욱 一般讀者들과의 대  
화를 넓히고 여러 分野에서의 意見을 수렴할 수 있는 方向으로 나아 갈려면 會員들의 積極  
的인 參與가 要求되어 보다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

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훌륭한 原稿를 보내주신 寄稿家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,  
每月 모여서 本誌를 보다 알차게 꾸미고자 숙의를 하여 주신 金在均編輯委員長이하 여러 編  
輯委員께 감사를 드립니다.

1986. 12.

編輯委員 黃 斗 鉉